

통합 안내서

모든 사람은
속해있고,
모든 사람은
봉사합니다.

장애 옹호인들을 위한 자원

두번째 판

편집

테리 A. 디영 과 마크 스티븐슨

장애우 사무처
북 미주 기독교 개혁 교단 (CRCNA)
미주 개혁 교단 (RCA)

모든 성경인용은
새 국제 번역본 임 (NIV).

저작권 © 2013 개혁 교회 인쇄소
테리 A. 디영 과 마크 스트븐슨 편집함.

판권 소유. 본 출판물을 허가없이 전체 혹은 부분
복사나, 정보의 출처를 인용이나 내용을복제하는
것은 공식판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용 경우는, 허가를 위해 개혁 교회
인쇄에 연락바랍니다.

(questions@rca.org; 616-698-7071).

추가 인쇄 매수는,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에 문의 바랍니다.
(www.faithaliveresources.org; 800-333-8300)

헌정



**넬라 우트볼트 께
(1952-2013)**

하나님의 자녀
모든 열정적인
공상가 지칠줄
모르는 선구자
유능한 옹호인의
친구

차례

제 1 장: 준비들

머리말	1
장애 사무처 사역들의 목표들	3
옹호인들로서의 사명	4
관계가 핵심 조항	6
장애란 무엇인가?	8
시작 하기	10
<i>깊이 살펴보기: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i> <i>(에릭 카터)</i>	12

제 2 장: 시작하기

일반 팁과 숙박시설	15
예의의 팁들	18
슬픔의 팁들	20
장애 자녀들의 팁들	21
부정 행동 방지의 팁들	23
<i>깊이 살펴보기: 행동/배움 다른점들</i> <i>(바르바라 뉴먼)</i>	25
간단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27
장애우들에 관한 신화들과 사실들	30

제 3 장: 특별 장애우들

A. 육적 장애들

이동성 장애우에 대한 팁	33
만성 혹은 말기 질병에 대한 팁	35
<i>깊이 살펴보기: 보편적 설계와 교회</i> <i>(제프 맥네얼)</i>	36

B. 감각적 장애들	
청각 장애와 귀면 자에 관한 팁	38
시각 장애에 관한 팁	40
C. 지적 장애들	
<i>깊이 살펴보기: 믿음 형성</i> <i>(바르바라 클라인)</i>	42
자폐증에 관한 팁	44
지적 장애들에 관한 팁	46
<i>깊이 살펴보기: 예배에 모두 참여</i> <i>(넬라 우트볼트)</i>	48
D. 정신 질병들	
알츠하이머 병/치매에 관한 팁	50
정신 질병들에 관한 팁	51
<i>깊이 살펴보기: 건강한 경계선들</i> <i>(크리스틴 구스)</i>	52

제 4 장: 더 나아가기

위탁 관리: 간병인들을 위한 돌보기	54
장애우들과 그 간병인들 돕기	56
<i>깊이 살펴보기: 예배 "중단"</i> <i>(빌 가벤타)</i>	57
장애 인식 주일을 축하하는 방법들	59
장애에 대한 교회 정책 주형	61
장애 신학의 터치 포인트들	63
교회 장애 변호인들의 역할	67
교회 변호인을 위임함	69
<i>깊이 살펴보기: 장애 태도들</i> <i>(댄 밴덜 플라츠)</i>	72
첫번 언어 쓰는 사람들	75
추가 자료들	77

제 1 장

준비들

머릿말

이 안내서를 열고 읽음에 축하합니다. 당신이 장애우를 알던지 좀더 알기를 원하든지 간에, 혹 당신은 장애우와 연관된 교회 사역이 더 발전되기를 확신하며 도울것이기에, 당신은 장애 옹호인입니다.

이 2011 년 통합 안내서 개정판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장애우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역을 하고 소속하기를 열망합니다. 전번과 같이, 이 개정 안내서는 북미주 개혁신교단와 미주 개혁신교단들의 장애 사무처 공동 산물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교회 통합 운동안의 유명 지도자들이며 세계적인 대열의 새 기고가들이 첨부되었습니다: 에릭 카터, 바르바라 클라인, 빌 가벤타, 크리스틴 구스, 제프 맥네일, 바르바라 뉴멘, 넬라 우트볼트와 댄 밴덜 플라츠. 우리는 특히 이 책의 분수령이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중앙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컬트 케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당신과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통합을 향하는 여정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 (사람들, 건물들, 지역 전문가들, 교단 직원들, 등).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고
감싸고 필요한 단계들을 인도하는데 당신과 교회가 돼길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교회안에서 각 개인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것인가를 알아가세요.

효과적 사역은 자연히 관계적이며, 옹호사적 일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통합 사역은 씨를
자라게 하는 것으로 다른사람은 물을 주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범 행동이 됩니다.

마크 스트븐슨 목사
CRC 장애 사무처
디렉터

테리 A. 디영 목사
RCA 장애 사무처
코디네이터

장애 관심 사역의 목표

장애 관심 사역은 교회 생활에 장애우들이 온전히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장애우들의 삶속에 교회가 온전히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근하며, 통합하며, 선교적 교회 참여와 장애우들의 참여를 그려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건강한 교회들을 갈망합니다:

-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의 고립과 단절을 끊음,
- 장애우들의 영적 삶을 양육함으로 그들이 정식으로 회원이 됨과,
- 장애우들의 은사들을 장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함.

마지막 목표는 교회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며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자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것들은, 연합한 장애 웹사이트 북미주 개혁교단(www.crcna.org/disability)과 미주 개혁교단(www.rca.org/disability)의 예배, 돌봄, 그리고 접근성, 많은 장애에 관한 개인 이야기들이나 종류들 담은 '장애물 헐기'의 분기별 뉴스레터 지난 많은 호들을 포함합니다.

옹호자로 우릴 부르심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함은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것을 미리 알리십니다. 그의 사역의 끝엔, 성만찬에서, 그는 자기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보혜사며 돕는자인 성령님을 보낸다고 약속하십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옹호자들의 특별한 부름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안에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사역위해 그들의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한 기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은 모두가 무엇을 함이 아닌 그들이 누구임에 근거하는 내재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26).*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각 사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본질입니다. *"몸은 단일체로써,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이다. 고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으며...몸의 여러 지체들은 약한것들은 빠뜨릴 수 없는것 같습니다"* (고전 12:12,22).
-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그러므로, 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지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에베소서 2:10)

- 모든 성도들은 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이 사명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4).
-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로 몸의 본질과 고유 기능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
- 건강한 교회들은, 모든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8-9).
- 건강한 교회들은, 모든사람들이 봉사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관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적, 교육적 그리고 사회 봉사 공동체들은 사람들을 “자폐증,” “뇌성 마비,” “치매,”와 “황반 변성”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부름은 사람들을 이해하며 도와주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남자나 여자 상표라 할 수 없습니다. 바르바라 뉴멘은 *자폐증과 교회*에 관해 쓰면서:

내 장모님은 당뇨병으로 판명을 받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내겐 그녀가 우리집에 올 때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내게 왜 우리가 바늘을 창고에 두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 그것은 그녀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어떠한 음식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도와 주었다. 또한 그것은 왜 그녀가 상점에서 내가 돈을 지불하기도 전에 오렌지 쥬스를 달라고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장모님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것이나 그녀 만의 특유의 개성이나 관심들을 알아가는 것에는 잘못 실수함도 있었다. 우리는 항상 당뇨병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린 함께 웃고, 말하고, 울고, 쇼핑가고 영화도 보았다. 비록 내가 장모님의 당뇨병부분을 알아 감사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복잡하고 유쾌한 사람 전체의 적은 일부분 이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특별한 당뇨병의 사람을 아는것은 더 많이 교회가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 사람도 도와주며,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멋진 복잡한 필요들, 은사들, 기쁨들, 도전들과 관심들이 있습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옹호자는 자들로서, 우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람과 관계에 집중하도록 장려해야지 어떤 상표들에 지나치게

신경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팀에서 주일학교서 카일이 어떻게 가장 잘 할 것인가, 그들은 그의 다운 증후군을 생각하면서, 그의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도, 안정하든지 흥분하든지, 어떻게 그가 잘 배우는지, 그가 교실 활동에서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카일의 은사를 통해서 교실이나 교회서 어떻게 사용할 것을 장려함입니다.

뉴멘은어떤사람의 장애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가족이 가진 휴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휴가가 무엇임을 말해주지만, 뉴멘가족이 휴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하기 까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장애우들과 함께 관계를 쌓지않으면 우리 교회들은 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 *하나님의 만찬에 불청객들: 교회에 장애우들을 환영하기*, by 브래트 웹-미셀
- *믿음의 공동체안에 장애우를 포함시킴: 봉사 도움이들, 가족들과 교회들의 안내서*, by 에릭 W. 카터
- 장애는 자연스럽다(www.disabilityisnatural.com)는 장애에 대해 언어와 태도의 많은 좋은 글이 있습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우란 장기적인 육체, 정신, 지적, 혹은 감각 손상들로 다른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참여함에 여러 장애물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1 조: 목적,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 및 촉진에 관한 유엔 협약*, 2006, 12 월)

이것은 장애의 두가지 기본 측면들을 인정한다:

1. 장애란 다른사람에게 보이는 한 손상이며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이지않는” 것이기도 하다:
 - 육체의 – 마비 또한 다발성 경화증 등
 - 정신적 –정신 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것
 - 지적/발달 – 다운 증후군 같은 것
 - 감각의 – 시각이나 심한 청각 같은 것.
2. 장애, 부분적으로, 사회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참여함에 여러 어려움의 결과를 갖는다.
그 어려움들이란:
 - **육체적 방해들**, 즉 차단이나 진입로가 없는 화장실의 정자 테이블등.
 - **통신 장벽들**, 큰 글자 자료준비의 부족이나 동영상 자막의 폐쇄등.
 - **태도 장벽들**은 고정관념의 장애우 결과로, 예를 들어, 맹인 혹은 시각 장애우들은 약 40 퍼센트 고용률.

장애보다 더 사람들이 중요하기에, "처음사람" 언어 사용에 신경쓰미 필요합니다. "한 장애우"라기 보다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한 장님"보다 더 "한 장님 사람"이라 말하세요. 한 사람은 정치적인 정확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진것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됨을 존중해야 합니다. (75 페이지를 보세요.)

시작하기

첫번째 달에:

1. 교회안에 같은 관심을 가진분들과 접촉함. 단순한 장애우들을 위한 옹호인이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옹호인이 되세요. (자신 스스로 옹호인 말하기를, "우리가 없이는 우리에게 관한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지역의 다른 장애 옹호인들과 연관을 갖음.
2. 교회가 장애 뉴스레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함 (**장애물** **헐기**, 예; www.rca.org/disability 과 www.crcna.org/disability 사용)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나눠지는지 확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 아님).
3. 많은 교회 주소에 "할 수 있으면, 일어서 주세요,"란 말은 사람들을 나누게합니다. 대신 주보에, "일어서십시요" 혹 "몸과 영혼이 다 일어서 주세요,"라는 말들은 연합하게 하니 요구하세요. 예배인도자에게 교회에 이런 변화를 얘기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사용하도록 하세요.
4.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큰 글자를 준비함.
5.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영사하는 글들의 인쇄물을 준비함.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모든 영사하는 글들을 큰글자로 준비함 (성구 포함).
6. 교회 목사님과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의논키 위해 약속을 잡음. 년중 행사에 장애 인식 주일예배를 정하도록 요구함. 장애 인식주일에 관한 생각들이나 자료들은 59 페이지를 보세요.

첫번째 년도에는:

1. 여러 장애들을 가진-거동, 시각, 청각, 등.-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교회 건물과 프로그램들을 접근성 감사를 실시함.(27 페이지에 접근성 감사 공구를

보세요.) 적으시고 행동에 옮기세요.

2. 15 페이지에 있는 “일반 팁들과 숙박시설”의 목록을 통해 작업을 시작함.

깊이 살펴보기

부모와 자녀 함께함

부모는 교회 연대성에 관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By 멜린다 울트 (켄터키 대학), 벨바 콜린스 (켄터키 대학),
그리고 에릭 카터 (벤덜빌트 대학)*

신앙 공동체안의 참여는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향상케하는, 긍정적인 결과의 호스트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

장애우 자녀들*과 함께하는 416 명 부모의 설문지는 신앙 공동체안의 부모와 자녀들을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모의 대다수는 신앙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장애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교회 생활에 많이들 참여하였다.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의 긍정적인 태도와 환영을 높이 평가하였다. 비록 장애 자녀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적은 활동의 부류들을 참여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이런 장애없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참여들을 더 감사히 여겼다.

* “교회 참여와 장애우 자녀와 부모를 돕기: 부모의 인식,” by 멜린다 존스 울트, 벨바 C. 콜린스, 와 에릭 W. 카터 (미국 지적과 발달 장애 협회; 사본 요청, 이멜 melinda.ault@uky.edu).

그럼에도, 부모들은 신앙 공동체의 도움 수준을 항상 만족하지 않았다. 사실은, 부모의 1/3 정도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환영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바꿨다고 설문지는 보고하고 있다.

관심사들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자녀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교회 직원들과 성도들-혹 함께하기를 원치 않음
-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분열적인”이라고 생각하는 지각들
- 교회 성도들의 한계적인 장애 인식들
- 그들 자녀들을 적당한 나이 그룹에서 제외됨.

이런 연구는 믿음공동체에게 유익을 제공한다:

- 장애 부모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초점하는 훈련
- 지도자들에게 장애 신학이나 도움의 지식을 제공
- 모든 사람의 가치와 참여를 받아들이는 태도들
- 장애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교회 생활들에 가장 잘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를 얘기하도록 초대함.

더 자세한 정보는:

- kc.vanderbilt.edu 에서, “장애, 종교와 영성 프로그램” 찾기
- 자녀들 특히 장애 자녀들 돕기, by 바르바라 뉴먼
- CLC 교회 봉사들 www.clcnetwork.org/church_services
- 연합 감리교의 장애 사역부 www.umdisabilityministries.org

제 2 장

시작함

일반적 팁들 과 숙박시설들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들과 얘기하기. 그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은사들이 있음을 앎! (48 페이지에 예상 질문들이 있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필요가 무엇있지를 물어보게함(어떤 장애들은 감춰져있음).
- 여러분 교회기구에 아직 없다면 장애위한교회행정(51 페이지 보세요)을 두게 장려하기.
- 장애우들의 비밀보장을 하세요, 특히 공중 기도시간에. 그들 위한 공적인 기도는 기도전에 물어보세요.

육체적 장애들

- 많은 육체적 숙박시설들은 숙고해야함. 제일 첫번 목록은 강대, 좌석 차단과 화장실의 접근통로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갈 수 없으면, 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건물의 다른 곳들도 지나가기 편하게 만듦을 생각하기, 즉 교제실들이나, 교실들과 물먹는 곳들도.
- 차고에 잘 다니게 하고 입구에 눈을 치워, 깨끗하고 편하고 잘 보이게 함.

시각 장애들

- 교회 모이는 곳을 적당한 조명을 유지함.
- 교회 주보, 노래들과 다른 인쇄물들을 큰 글자를 사용함(미리 점자를 요구하면 준비함).
- 인쇄물이나, 웹이나 모든 비취는 것들, 노래 가사 포함해 간단하게 준비함.

청각 장애들

- 예배 전에 설교문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함(고로 듣기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따라가게함).
- 음향시설이 잘들리게 준비함.
- 청각 루프 시스템 설치를 고려(see www.hearingloop.org).
- 수화 통역을 주선함 (미리 요구할 경우).

알레르기와 화학 민감도

- 교회가 천식이나 폐기종을 가진 사람들, 혹 다른 화학물에 민감한 자들을 위해 향기없는 영역을 만들 것을 장려함. 교회의 좋은 첫 인상을 위해 성도들에게 에프터세브, 로션, 향수를 사용을 금지하게 말해줌.
- 성찬식에 사용하는 정기적인 포도주나 빵대신 포도 쥬스나 클루텐 없는 빵을 준비함.
-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가져올 때, 특히 땅콩과 견과류가 들어간 것들을 표시하게 부탁함.

일반적인 숙박시설들

- 장애우들이나 노인성도들, 특히 낯선 날씨엔, 주차 대행을 준비함.
- 예배나 다른 교회 행사들 위해 자원 봉사들을 주선함.
- 다과나 쥬스을, 특히 당뇨병을 가진 자들을 위해, 준비함.
- 다른 사람들 대신 필기할 수 있는 자원자를 준비함.
- 예배 인도자들에게 질감, 맛, 색상과 움직임의 중요성인 다중 감각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함.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하는데 유익함을 준다.
- 교회 "색깔"혹 "문화"가 장애우들이 예배드리는데 서 있는 것이나 걸어가는 것이 더 도움인지 방해인지 노력바람.
- 어떤 장애우들에겐 어떤 특정방식의 규율이나 행동이 어려울 수 있음. 이것을 감지해, 다른 사람에게나 혹 자신들에게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함. 21 페이지 "부정적 행동 방지위한 팁들"을 보세요, 22 페이지에 "행동/배움 다른점들"(바르바라 뉴멘)을 보세요, 또 44 페이지에 "건강한 경계선들"(크리스천 구스)을 보세요."

에티켓위한 팁

원칙: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기.

- 손을 흔들거나 만짐 (혹 보철물); 왼손을 흔들도 적당함.
- 돕기전에 물어보거나 주의사항을 잘 들음. 보조장치로 사람 전체를 제어 방해마세요.
-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당신이나 사람들을 섬기게 하세요.
-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이하기 보다는 직접 얘기하세요.
- 늦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부끄러워 마세요, "난 지금 가야해," "나중에 봐," 혹 "이거 들어봤어," 그 사람이 뛰거나, 보거나 듣지않아도.
- "절음발이," "귀머거리와 병어리," 와 "휠체어 바인딩" 같은 말이나 표현 앓함. 대신 "메리는 귀머거리다 (혹 듣기 힘들어 해)," 혹 "데니스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 장애가진 자가 보통의 일을 했을때 지나치게 칭찬은 금물.
- 개인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휠체어에 기대지 마세요.
- 일하는 동반자 개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넉넉한 주의를 주기.
- 듣기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천천히 직접 말하기. 그 사람 귀에 대고 크거나 말하지 않기.
- 보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름과 어디에 있는지 말하기. 도움을 줄 때, 팔을 잡게하고 올라가거나 돌때는 말해줘 기억케함.
- 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얼마간 함께 있을 땐, 그 사람 눈높이에서 말하기.
- 뭘하든지, 장애우를 알아가는데 "잘못하는" 말이나 행동의 공포주지 않기. 처음 만나 뭐라 얘기할찌 모를때는, "안녕" 혹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함.

슬픔을 위한 팁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장애우임을 발견할 때나, 어떤 가정에서 누구의 삶속에 사고나 병이 생길 때나, 혹 어떤이는 커지는 장애로 자기의 기술을 잃을 땐, 슬픔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애가 첨에 생겼을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은 회복할 것입니다. 이 다른점들을 알도록 도와줍시다.

- *치유*: 어떤 병이나 장애의 완전히 없어짐.
- *나음*: 내부 통합, 강건함이나 의미, 목적이나 가치의 감각의 향해 성장함.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에, 하나님께 이것들을 채워달라고 구하세요:

- 듣는 귀: 내 자신 이야기를 말하는 유혹을 피함, "내가 이것을 경험할 때, 난..."
- 공감의 마음
- 정죄에 대한 거부감
- 단순히 존재하는 의지
- 개방성과 투명성
-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

더 자세한 정보는:

-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공부하길 격려함, *자비로운 여행: 장애및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가기*, by 존 G. 쿡
- *자비로운 교회: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by 케런 물덜과 진절 쥬리스
- *도움의 90%는 다 배려함이다*, by 제임스 R. 쿡
- *끈임없는 은혜*, by 리치 딕슨

장애 아이들을 위한 팁들

원리:아이가 먼저입니다; 장애가 결코 아이를 인간, 소중함, 사랑의 필요나 양육, 등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해 말하게하고 시간을 주고, 혹 애기하고 싶지않더라도 존경하세요.
- 만일 새 부모들이 자기 임신한 혹 출산한 아이가 장애라 알았을 때, 축하하며 계속 기뻐해 주세요.
- 부모에게 아이의 다른 어떤 것들을 물어보세요 (아이의 관심들, 재능들, 좋아하는 것들, 등.).
- 장애를 가진 가진 자녀의 삶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확신이 있거나 부모가 "함께 해도" 힘든 것들임을 해도 깨달는 것.
- 부모가 최선으로 하는것을 인식함. 부모나 혹 그들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 우리 교회가 장애 아이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영적,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필요의 책임을 하는지를 눈여겨봄.
- 부모들에게 학교나 집에서 다른 가르치는 방법들이 성공함을 말해줌.

더 자세한 정보는:

- *자폐증과 우리 교회*, by 바르바라 뉴멘 Barbara Newman
- 부활절 인장들 – www.easterseals.com
- 친구들 사역 – www.friendship.org
- *장애아이 포함한 아이들 돕기 가이드*, by 바르바라 뉴멘
-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국가 보급 센터 – www.nichcy.org
- "홀랜드에 옴을 환영," by 에밀 펄 킹슬리
(www.downsyn.com/holland.php), 이것은 장애 아이가 이태리를 방문하는 계획과 홀랜드에 간 것을 비교함.

부정적 행동을 예방하는 팁들

어떤 장애들은 어떤 사람에게겐 특정한 유형의 규율이나 행동을 따라하길 어려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누군든지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는 행동이 생기지 않게하세요.

- 귀기울이세요. 융통성을 가지세요. 긍정적 격려를 많이사용하세요.
- 활동을 바꿀 때엔 5분의 경고를 주세요.
- 시각과 청각의 방해들을 제한하기. 헤드폰은 좋은 기구임!
- 안전하고 잘 돼있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시한 후 5 초의 반응할 시간을 주기.
-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 사람을 존경하도록 기대함.
- 권력 투쟁을 피함; 다른 선택들을 줌.
- 그런 행동들을 피할 수있는 방법들을 당사자나 가족들과 얘기하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생길땐 해결할 도움의 "비밀" 표시를 지도자와 동의함.
- 만약 개인이 학생이면, 학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논함.
- 행동들이 발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후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않게 무엇을 피해야하겠나?
- 모두가 안정돼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은 안돼는지 설명함. 계속 좋은 결과과 생기도록 함께 노력함.
- 위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무시함. 어떨땐 찾음.

- 환경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힘들어 함을 우린 많이 놓칩니다 (특히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나 감각 통합 장애)-예를들어, 형광 빛의 콧노래, 몸 비누의 향기, 옷안의 표지 느낌, 피부의 바람, 등.

(애슬리 피터슨에서 각색함, 장애 자료 책자:교회와 지도자들
위한 실제적 안내서, 추가물 D. 찾아 보기 “장애 자료 책자,
www.covchurch.org.)

깊이 살펴보기

행동/배움 다른점들

발달 다른점들에 대해 부모와 함께 대화하기

By 바르바라 뉴먼, 기독 배움 센터(CLC) 네트워크위한 교회와 학교 컨설턴트

돌봄센터의 직원이 두살 남자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을 주시하였다. 주일학교 3학년 선생은 읽기와 쓰기에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지 걱정이었다. 학생그룹 지도자는 그룹안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적당히 어울림을 힘들어함을 보았다. 이러한 때는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지 않은가요, 그러면 어떻게?

첫째, 교회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을 위한 부모로부터 정보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등록엔 "당신의 자녀가 어떤 은사와 재능들이 있나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이는 어느 특별한 것에 필요가 있나요 (음식 알려지, 집중 혹 초점 문제, 감각 다른점들, 염려 느낌들, 읽기아 쓰기에 힘들, 등.)?" 마지막 질문은 표시나 지정이 아닌 관찰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 또한 그 아이의 은사범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부모와 계속 순서대로 대화하면, 먼저 아이의 은사를 묻고, 그후에 어떤 관심있음을 간단히 물으세요. "당신 아이는 훌륭합니다. 그는 활동적이며, 우리 방에 말한 영역에 그리는 또 놀라운 작품을 만듭니다. 난 또 그가 조용한 곳에 있는것을 힘들어 함을 목격했습니다. 당신도 봤습니까?" 이는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만약 부모가 "예"라고 답하면, 무엇이 그 아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근데 만약 부모가 "아니요"라 하면, 교회상태가 더 도전적임을 제안하고 더 좋은것을 만드세요. 둘중에 어느것이든지 간에, 당신은 해결책이나 전략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The G.L.U.E. 양육 책자, by 김벌리 룰세마와 바르바라 J. 뉴멘 (www.clcnetwork.org 있음)

간편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는 여러분 교회 접근장애를 없게하도록 측정하는 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듣기 지침서는, 우리 웹사이트를 보세요 (www.rca.org/disability and www.crcna.org/disability).

태도의 장애들:

- ⊕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들이 예배나, 지도자로, 교회 프로그램에 환영받는가 묻습니다.
- ⊕ 우리교회는 계획적으로 교회 생활 전반에 장애를 가진 자들이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교회 위원회나 혹은 다른 지도력 위치서 봉사합니다.
- ⊕ 우리교회는 위원회나 혹은 교회 장애 변호인이 있습니다.
- ⊕ 안내자나, 교사나 또 학생지도자들/멘토들은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인사할 것인지 그들의 필요를 도울것 인지에 대해 지시해 줍니다.
- ⊕ 예배나 교회 다른 일들속에 "무 향료"나 참석자들에게 향수나는 옷입음을 삼가하도록 합니다. 향기없는 초, 비수, 가루, 청소재료들, 공기 청정제나 화장지는 사용합니다.
- ⊕ 운전못하는 장애가진 사람들에게겐 운송을 제공합니다.
- ⊕ 우리교회는 장애에 관한 교회 정책을 채택합니다.
- ⊕ 교회 지도자들은 장애를 가진 자들과 돌보는 자들의 필요를 , 특히 목회적 돌봄을 공감하며 일합니다.

대화의 장애들:

- Ⓜ 우리교회는 청각 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해 청각 보조 장치들을 (적외선의, 청각 루프, FM) 준비합니다.
- Ⓜ 수화 통역이 필요할 때는 미리 준비합니다.
- Ⓜ 수화나 말 읽기 혹은 눈이 나쁜자들을 위해 전반적인 조명을 적합하게 합니다.
- Ⓜ 노래책, 성경, 주보, 뉴스레터나 유인물들은 큰 글자, 오디오, 디지털로 (혹 미리 요구하면 점자도), 그리고 눈에 띄게 표시하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 Ⓜ 주일 설교나 예배의 말하는 순서의 원고들을 청각 장애의 사람들을 위해 또 자막은 영상 프로젝트와 함께 준비합니다.

시설이나 건축물의 장벽들:

- Ⓜ 접근쉬운 주차장을 준비함.
- Ⓜ 입구나 복도를 휠체어가 방해되는 장애들이 없게함 (문턱들, 그릴, 두꺼운 메트들).
- Ⓜ 문 손잡이들은 안쪽의 문들은 다 생활 스타일로 함.
- Ⓜ 진입로에는(1:12 보다 크지 않은 경사로) 건물로 들어오는 길을 준비함.
- Ⓜ 방의 문들은, 특히 목욕문들은, 적어도 36 인치 (910 mm) 넓이로 함.
- Ⓜ 모든 화장실 안에 올바른 가로대들은 움직이든지 설수 있게하든지 돕고 설치함. 모든 가로대드른 병원 고정물의 높이로 함. 모든 싱크대 고정물들은 무릎 진입을 위한 절연한 파이프들과 레버 식 핸들이 가능케함.

- ⊕ 적어도 한 화장실 실속은 제기 좌석과 옆 연결위한 변기 공간을 준비하고, 전기 휠체어 큰 돌아가는 방을 준비함. 더 좋은 건: 진입하는, 남녀공용 화장실 사용케 함.
- ⊕ 외투 선반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게 함.
- ⊕ 건물의 모든 층들은 내부에서 부터 접근할 수 있게함.
-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예비실에 앉을 수 있는 위치 선택을 갖음 (전면 혹은 후면 줄들 옆).
- ⊕ 강단 주위는 진입할 수 있게 함.
- ⊕ 교회 우편함들도 진입할 수 있게 함.

장애를 가진 자들의 신화와 사실들

다른사람들 처럼, 장애를 가진 자들도 고정 관념들과 싸웁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장벽들은 사람들의 태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 그 태도들은 보통 장애로 사는 삶들에 대해 잘못되거나 잘못 이해된데서 근거합니다.

신화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용감하거나 용기가 있다.

사실: 장애에 적응하는 것은 용맹이나 용기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적응이 필요하다.

신화 2: 휠체어 사용은 가두는 것이다;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은 "휠체어에 갇힌"거다.

사실: 휠체어는, 자전거나 차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이다.

신화 3: 청각 장애의 모든 사람들은 입술로 읽고, 시각 장애가진 사람들은 "육감"이 있다.

사실: 입술 읽기나 음성 읽기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 다양하며 결코 절대적으로 신뢰할만 하지않다. 반대로 많은 시각장애 사람들은 "육감"을 갖고있지 않고 오히려 더 남아있는 감각들을 개발한다.

신화 4: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종류"와 함께함이 더 편하다.

사실: 전에는, 장애를 가진 그룹 사람들을 이 오해로 별도의 학교나 기관들을 강화하였다. 지금은, 많은 장애가진 사람들이 주류 사회와 함께해 새로운 기회들을 갖고있다.

신화 5: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자들을 “돌보는” 의무가 있다.

사실: 누구든 도움을 줄 수 있지, 많은 장애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하기를 원한다.

신화 6: 경계심 많은 아이들은 결코 그들의 장애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고, 억제되지 않은 호기심으로 어른들은 창피하다는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잔소리하는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것을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으로도 생각한다.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관찮게 여긴다.

신화 7: 장애를 갖고 사는 삶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학교가고, 결혼하고, 일하며 가정을 갖고, 빨래하고, 쇼핑하고, 웃고, 울고, 화내고, 편견을 하고, 투표하고, 계획하고 모든 사람들처럼 꿈을 꾸다.

신화 8: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한다.

사실: 누구든지 성적 활동으로 성 관계를 갖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연적으로나 입양으로나 자녀를 갖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처럼, 성적인 존재들이다.

제 3 장

특별한 장애들

A 부분: 육적 장애들

기동성 장애들 위한 팁들

- 휠체어 탄 사람이 그들 혼자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부탁할 때는 돕는다. 그들이 필요가 보일때, 물어보며 돕는다.
- 휠체어 탄 사람을 계단에 오르거나 내림이 필요할 땐 반드시 규칙대로 잡을때에 하는 법에 따라 한다. 휠체어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일입니다. 그들 장애들은 종종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휠체어탄 사람과 얼마의 시간을 드릴때 (2 분이나 혹 이상을), 그들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얘기하세요.
- 휠체어 탄 사람에게에게 직접 말하지 옆에서 돕는 사람에게 하지마세요.
- 만약 밖에 나갈 땐, 휠체어 탄 사람이 창피하지 않는 그런 장소있지 혹 다른 특별한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 온라인에서 접근성과 인식 자료들을 확인하세요 (such as www.crcna.org/disability and www.rca.org/disability).
- 교회 접근성 네트워크—
www.accessibilitynetwork.net

만성 혹은 터미널 질환에 대한 팁들

- 질환을 이해하기. 예를 들어, "암"이란 단어를 사용않기. 그것은 환자에게겐 심각하기에. "당신은 암의 진단을 대하기에 매우 힘든 시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 함께 있기; 듣는 귀를 주세요.
- "어떻게 얘기할찌 무엇을 도울찌"를 모르겠다고 정직히 말하기.
- 이 질환이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으로 대하지 말기.
- 혹은 가족들이 없으면 환자와 함께할 것을 약속을 제공함.
- 당신의 병이나 회복등으로 대화를 주도하지 말기.

더 자세한 내용은:

- *자비로운 여행: 장애나 만성 질환자와 함께 하기,*
by 존 G. 쿡
- *자비로운 교회: 돕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
by 케런 물던와 진절 주리스
- *만성 질환자들 위한 사역,* by 존 벤덜 지

깊이 살펴보기

우주적인 디자인과 교회

교회의 사회 활동들을 다시 생각하기

By 제프 맥네일, 특수교육 교수, 가주 침례교 대학

사람들이 "우주적인 디자인" 원리들을 얘기할 때, 보통 그들은 사람들-장애를 가진 자나 앓가진 자들-의 유익이나 본질적으로 접근해 환경을 조성하는 물리적 변화들을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예는 커브 절단입니다. 이 물리적 변화는 원래 휠체어 타는자나 또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나, 어린이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자, 자전거 타는 자들, 물건 나르는 자들, 등등.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물리적 변화는 디자인위해 만든 사람들 이상으로 중요한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위한 연관된 원리는 "우주적인 사회 디자인"이라 부르지요. 사회적 기술들이 부족한 사람들과 얼마간 있어보면, 나는 나의 사회적 기술들을 바꿔짐을 발견하면서, 특히 어떤 장애우들은 많은 경우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 활동들은 많은 사회적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기술 이유들로 교회서 제한을 둔다면, 사회 환경을 바꿔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적 경사"가 사람들을 접근하게 하며 사회적 수락을 만드는지? 이 우주적인 사회-디자인 원리들을 채택하면, 성도들간에도 상호 작용의 변화가 생기지요. 개인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지만, 우린 더 열고, 용서하고, 정죄없이 고쳐주고, 성결하고, 기본적인 사회 상호 작용을 깊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깊은 상호 작용의 예는 성경 마태복음 25:31-46 서 볼 수 있는데, 예수 자신도 똑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십니다.)

사회적 기술들을 수락함을 으뜸으로 놓을때, 사람들은 배척되고 사회 환경은 수락함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주적 사회 디자인을 실행할 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로 여겨지고, 또 사회적 기술들을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이 받아들이는 요구가 됨. 사회 환경이 적어질때 교회도 덜 판단하거나 느슨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사회 기술 부족에 근거해 사람들을 거절함이 고쳐짐.

우린 사회-기술 부족함들이 죄가 아님을 알고, 반대로 사회-기술 부족함을 겪는 자를 거부함이 죄임을 알게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 우주적 디자인 — www.universaldesign.com
- 장애 기독교 불력 — disabledchristianity.blogspot.com

B 부분:감각 장애들

청각장애, 듣기힘든자 위한 팁*

- 정확히 얘기하며(힘주어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함. 짧은 문장 사용.
- 배경 소리 줄임. 문을 달음; TV 도 끄.
- 듣는자와 대면함.
- 내 얼굴이 잘 보이도록 적당한 빛을 준비함. 문이나 혹 빛근처에 서지 말기.
- 듣는자에게 얼굴을 잘 보이게 함. 손이나 다른 것들은 내림. 무엇을 씹지 말기.
- 쓸때나 걸을 땐 얘기하지 않기.
- 말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의를 갖기. 얘기 시작할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방해들을 줄이기.

*"귀머거리," "청각장애우," 혹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의 차이들이 있다. 청각장애나 듣기 힘들어하는 공동체에는 다양하다. 원인들도 여러가지이고 듣기를 잃음의 수준이나 발병 나이, 교육 수준, 대화 방법들과 그들 각자의 느낌도 다르다. 그들 자신들도 이해함도 개인적이고 청각이나 듣기 힘들어하는 공동체가, 그들의 듣는 수준도, 또 연관된 발병 나이도 식별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을 "후기 청각장애"로 생각해 삶의 후기에 듣기를 잃어버렸다고 여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귀머거리-장님"으로 듣는 것을 좀 잃었고 보는것도 좀 잃었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를 잃은 자들"은 포함하고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청각 장애우들은(대문자 "D") 자신들을 다른 언어나 문화그룹이나 스스로를 장애가 없는것으로 구별한다. 여러 해동안, 가장 많이 공통적인 것들은 "귀머거리," "청각장애우," 혹 "듣기 힘든자"로 받아들이는 술어들이다.
(Source: www.nad.org)

- 대화 주제들의 문맥 실마리들을 준비하기.
- 듣는자가 반복할 땐 이야기를 알아 들음으로 알기. 그룹상황엔, 답을 얘기하기 전에 질문들을 반복하기.
- 여유를 갖기. 반복 혹 바꿔말하기. 혹 천천히 다른 단어로 말하기.
- 만약 그 사람이 읽을 수 있거나 쓰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주제 단어를 쓰세요.
- 소그룹의 자리로 만들고, 가능하면 동그랗게 혹 둥근 테이블을 준비함.
- 큰 미팅들에는, 말하는 자 가가 요약들을 준비케 함.
- 만약 소리 증폭 기술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모두가 다 잘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자세한 정보는:

- 캐나다 청각장애인 협회 – www.cad.ca
- 국내 청각 장애인 협회 – www.nad.org
- 청각 루프위한 정보 – www.hearingloop.org

시각 손상들을 위한 팁*

- 시각 장애를 가진 자에게 다가갈 땐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대화하거나 자리에서 떠날 때는 얘기하고 떠남.
- 보통 소리를 사용함(기묘하게, 시각 장애를 가진 자들은 종종 소리를 지름).
- 시각에 연관된 보다 혹은 보라 참고들 사용을 좋음.
- 시각 손상을 가진 자에게 간단한 주위를 말해주기; 예, "방안 가운데에 테이블이 있고, 약 6 피트 전방에 있어."
- 시각 손상을 가진 자를 안내할 땐 설명 문구들인, 소리, 냄새나 거리를 사용하기.
- 당신 팔을 사용토록 하기. 만약 당신이 도움을 줄 땐, 당신의 팔꿈치를 사용케함이 가장 좋고 시각 장애가진 자가 당신을 지시하게 함. 걸음은 보통으로 함.
- 안내 견들은 걸어다니는 동물들이기에 애완동물들로 취급하지 말기.
- 시각 손상을 입은 자의 지팡이를 잡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말기.

*낮은 시력이란 시력 수준이 20/70 이나 그 이하의 용어 의미로 혹은 보통 안경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낮은 시력은 자연적인 나이때문이지 아니고 눈 병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즉 황반 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 변증등이다. 법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자는 교정 중심 시력의 더 좋은 눈이 20/200 (완벽한 시력은 20/20) 보다 낮은 경우이며, 혹은 반대 시력이 20 도로 좁아지거나 더 좋은 눈이 낮은 경우이다. 법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자도 유용한 눈을 가질 수 있다.

(Source:www.kellogg.umich.edu)

-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 큰 인쇄, 오디오, 디지털 문자, 점자 – 가능하면 일상적으로 준비함. 시각 손상을 입는 각 개인 취양에 따라 선택하게 함. 각 개인의 사용함이나 좋아함이 어떤 판이라고 단정하지 말기.
- 적당한 빛이 있음을 확인함.
- 정기적으로 주보나, 노래나 교회 다른 인쇄물들도 큰 글자를 준비함 (그리고 요구하면 점자를 미리 준비함).
- 인쇄물이나, 웹사이트나 비추는 모든것들, 노래 가사까지 배경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함.
- 시각 손상을 가진 자에게 직접 당신의 말, 질문이나 관심들을 얘기하지 그와 함께한 자에게 하지 말기. (“기본 에티켓: 시각 손상을 입은 사람들 위함,”에서 가져옴, 인력및 장애에 대한 국립 센터, www.onestops.info.)

더 자세한 정보는:

- 맹인의 미국 위원회 – www.acd.org
- 맹인을 위한 미국 재단 – www.afb.org
- 맹인을 위한 캐나다 국립 연구소 – www.cnib.ca
- 맹인의 캐나다 위원회 – www.ccbnational.org
- 맹인의 국립 연맹 – www.nfb.org

C 부분: 지적 장애들

깊이 살펴보기

믿음 형성

관계성과 심한 지적 장애들

By 바르바라 클라인 수녀, 교리 사무소 디렉터, 그랜드 래프츠 교구, 미시간 주

베카라는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이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이모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 베카는 깊은 아픔과 함께 울기 시작했다. 베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 했을까요? 아마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의 톤에 민감했을 것이다.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화나 감정, 기분이나 촉감을 미묘하게 찾아낸다. 그녀는 아마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찌 모르나, 그러나 그녀는 느낌들이나 경험들을 이해한다.

베카는 매주 교회 예배에 나간다. 그녀가 조용히 들을때나 기쁨을 표할땐, 그녀의 영성이 믿음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어 집니다. 그것은 그녀 혼자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단순한 느낌 혹 감정이 아니다. 그녀의 영적 경험은 믿음 공동체에 의존하며, 그녀의 영성은 자신의 개념이나 경험이기 보단 통합된 것이다.

베카같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믿음공동체의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베카 같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식이 사랑스런 관계들 안에서 깨닫게 된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선 지적 능력들 관계없이 같다. 하나님의 지식은 능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일들은 교회를 통해 조정된다. 지적 장애를 가진 자들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제거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응답은 다른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하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모습과 공동체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필수 의존 관계에 잇는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서로간에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져온다.

더 자세한 정보는:

- 아이들을 위한 교리공부, 죠셉 D. 화이트와 애나 화이트
- 장애위한 국립 카톨릭 조합 — www.ncpd.org
- 통합 사역을 위한 국립 사도직 — nafim.org

자폐증위한 팁

자폐증 잔상 장애를 가진 자의 일반적 특성들

(미국 자폐증 협회에서):

- 말하기가 약하든지 늦음
- 같은 단어 반복함 또/혹 몸을 기계적으로 움직임
- 동료 관계성을 흥미 부족
- 자발적 혹은 재생 놀이 부족함
- 어떤 물체, 틀 혹은 주제들에 지속적 고정함
-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있음
- 사회 생활속으로 부터 숨거나 도망하길 시도함

자폐증 가진 사람과 관계하기:

- 간단한 눈 맞춤과 자연스런 인사하기, 반응이 오든 혹은 가능하든지. 이름 불러 인사 하기.
- 손 악수를 청함, 그러나 강요는 말기.
- 주일학교나 소그룹 모임들에 도움을 주기.
- 자폐증 가진 많은 사람들은 틀이 중요함. 놀래킴은 종종 무서워함. 예측하게 변화의 경고를 미리 줌.
- 지침들은 시각적 도움을 제공함.
- 혼란은 성냄을 불러오기도 함.
- 갑작스런 큰 소리들은 -생각지 않은 박수들도-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함.
- 어떤사람들에겐 특정 감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취하는 것들이지만 불쾌감이나 통증이 됨을 기억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 *자폐증과 우리 교회*, by 바르바라 뉴멘
- 사회 학습 및 이해를 위한 회색 센터 —
www.thegraycenter.org
- *자폐증과 믿음: 지역 사회로의 여행*, 메리 베스 월스,
알리스 F. 월스, 윌리엄 C. 가벤타 편집함

지적 장애들을 위한 팁

- 각 개인들은 뚜렷한 성격들, 좋아함과 싫어함들이 있음을 알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가정 말기.
- 손을 잡는 것 같은 보편적 예절들을 베풀기.
-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땐, 이해하는 척말고 말하기.
- 교회서 환영할때 가족이나 개인이 되거나 예배 때 함께 앉거나 필요시 돕기.
- 사람들을 정신적 나이나 혹 지적능력 생각말고 연대별로 생각하기. 어른들은 어른들로 대하기.
- 그들을 "애들"같이 혹 예쁜 이름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처럼 간주하지 말기.
- 지적 손상들을 가진 애들이나 어른들도 교회 프로그램에 가능한 많이 참석케 함.
-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은사들을 사용케 격려함. 간증, 안내위원, 기도 파트너로, 찬양대원, 성경이나 예배순서 읽기 (필요시 리허설 함), 드라마나 댄스로 봉사하기.
- 많은 읽기보단 예배순서에 참여시킴이 더 좋음. 또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반복적인 술어들이 도움됨.

더 자세한 정보는:

- 우정 사역들- www.Friendship.org. 우정 프로그램들은 지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배나 성만찬에 참여시키고, 또 교회 정 회원으로 준비시키기 좋은 방법들임.

- *장애 가진 애들과 함께 아이들 돕기*, by 바르바라 뉴먼
- *믿음 공동체 안에 장애 가진 사람들 포함하기*, by 에릭 W. 카터

깊이 살펴보기

예배에 모두 참여함

지적 장애 가진 사람들로 부터 배우기

By 넬라 울트리트, 우정 사역부의 전 총 책임자

내가 우리교회 우정사역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룹 홈을 하는 직원이 사람들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냐고 물었다. 세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써, 난 내 자녀들과 다른 친구들을 함께 볼 자신이 없었다. 고민끝에 목사님께 이 일을 교회에 알려 나와 함께 참여할 사람을 찾았다. 반응은 대단했다. 우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연습을 하고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누구든간에 교회의 호스트 가족과 함께 앉아 예배드린다.

교회에선, 이런 배려의 표현은 "그룹 홈 줄의 아무개"가 아닌 그룹 홈의 개 개인의 이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호스트 가족들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우정 사역의 멘토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우리 온 교회는 변하였다. 지금 우리는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을 포함해서 각 자의 이름을 알고있다. 우리 모두는 교제시간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 방문자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고 말한다. 나이든 보행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른들도 이젠 환영을 받음을 알기에 집에 있을 필요를 앎느낀다. 많은 주일 아침예배엔 휠체어를 위한 차단 좌석은 다 차게되었고, 진입이 필요한 주차장도 더 필요하게 되었다.

매주일, 우리 예배 순서에 읽지 못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기계적 응답을 도입하였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주보에 큰 글자와 함께 노래 가사를 띄워주기에 노래할 수 있다. 우린 종종 예배때 우리 우정 사역서 좋아해 부르는 노래들을 부르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유아부에서 돕고있다.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하거나, 예배순서를 참여하거나 세례를 받고있다. 그런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가치를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 우정 사역들 — www.friendship.org
- 예수안에 믿음 고백하기, by 로날드 리드벨드
- “예배 자료들” at www.crcna.org/disability
- “영성과 배려: 장애우들을 환영함으로 교회가 무엇을 배울까” — www.rca.org/disabilitypaper

D 부분: 정신 질환

알츠하이머/치매를 위한 팁

- 인내하며 안정성 주기.
- 만짐은 매우 중요함.
- 어린애들 말투는 사용 않기.
-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까이서 듣기.
- 그와 혹 그녀가 말할려는 단어뒤에 감정을 생각하기.
- 혹 그가 화나거나 당황할 때 그러냐고 물어보기.
- 그 혹 그녀를 품위와 존경으로 대하기.
- 그와 토론, 논하거나 이유를 따지지 말기.
-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니.” 하지 말기. 대답할 것을 다시 단순히 반복하기.
- 그에게 전에 일어난 것을 기억하려고 묻지 말기. 무엇을 기억하거나 혹 알거나 그나 혹 그녀가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말하기.

(J. 프랭크 브로일스에서, *알츠하이머 간병인들을 위한 코치 브로일스 각본*)

더 자세한 정보는:

- 알츠하이머의 협회 – www.alz.org
- 캐나다 알츠하이머 사회 – www.alzheimer.ca

정신 질환들을 팁

- 평범하게 인사를, 간단히 눈을 맞추며 “안녕”과 이름을 불러줌.
- “어떠냐?” 혹 “지금 몸은 어떠냐?” 물음을 피하세요. 이런 말들은 심한 아픔이 될 수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이 함께할 때.
- 조그만한 것을 얘기함도 어려워 말기.
- “난 당신을 봐서 기쁘다”란 말이 가장 필요한 말임.
- 무엇을 물었을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이상 떠밀지 말기.
- 그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귀담아 듣기. 당신이 그들을 아는것이나 관심이 중요함.
- 어려움을 쉽게 여기지 말기. 당신에겐 적은 일이지만, 그들에겐 큰일임.
- 당신이 관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판단하지 말기. 어떤 경우엔 하지 못하지만 어떤때는 할 때도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으로 다함을 인식함.

더 자세한 정보는:

- 카나자 정신 건강 협회 – www.cmha.ca
- 정신 건강 사무처 – www.mentalhealthministries.net
- 정신 질환을 위한 국립 연합- www.nami.org
- 약속의 길들:사역과 정신 질환 –

www.pathways2promise.org

- 샬렘 정신 건강 네트워크 – www.shalemnetwork.org

깊이 살펴보기

건강한 경계들

경계들을 세우기와 모델링

*By 크리스틴 구스, 재 세레론 장애 네트워크, 프로그램
디렉터*

교회의 성도들이 장애를 가진 자들을, 특히 정신 질환을 가진 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생각하길 그들을 돌봄이 무리하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경계들을 배양함을 배움으로 그런 주저함이나 두려움을 이기거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한걸음 가게 한다. 경계들은 우리 책임들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게 도와준다. 그것들은 우리의 피해움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속성과 탄력을 갖추게 한다. 만약 내가 경계들을 스스로 정하지 못할 때, 당신의 경계들은 우리의 관계를 잘 자라게 해주는 유익을 준다:

건강한 경계들은 아래와 같다:

- 연약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줌
- 내 자신 실제 능력과 한계알아 피로와 분노를 피하게함
- 다른사람이 무엇을 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함.
- 내 자신이 못하는 것을 포기하게 함.

- 실제적인 사람들의 능력들과 도전들을 기대하게 함
- 기대함을 정확하게 하고, 항상 무엇이 안될까를 미리 준비함 (내 계획은 내가 할수 있거난 감당할 때만 실천에 옮긴다.)
- 자신 돌봄을 본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함을 존경함
- 변화는 상황들을 잘 대처함 (느슨함이 절제가 안되면, 경계를 강화함으로 생각함. 성장의 징후들을 나를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계를 늦추게 함)
- 과정을 평가함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날때, 난 할 수 있음과 없음을 재 평가하고, 전략을 바꿈.)
- 열심히 일함

우린 경계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힘과 통팔력을 의지하며 산다. 우리의 경계들은 우리를 조절하게 돕고 관계의 잘못됨이나 힘들을 막아준다. 그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초대한 것 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환영하게 도와주는 선물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 재침례론 장애 네크워크 경계 세우는 얘기들과 팁들:
www.adnetonline.org/boundaries
- 경계 세우기, by 베로니카 로이
- 경계들: 언제 예 할지, 어떻게 노할지 우리 삶을 제어 함,
by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

4 부분

더 보기

임시 간호: 간병인을 위한 돌봄(간호)

- 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한 간병인 일정은 매주마다, 매달마다 일어나는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다. 책임의 일정을 종종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함이, 일정하는 자를 유예를 제공한다.
- 그 사람의 “지원 서클” 혹 “둘러선 모든것”와 가족들을 위해 조직을 도와줌
- 부모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자녀들을 돌보아줌.
- 홀 부모 가족이 외출하도록 자녀들을 돌보게 해줌.

장애를 가진 자들이 (혹 그 간병인들도) 매일 접하는 것과 도움일을 찾는 특별한 일들을 고려함:

- 육체적 일들- 다르게 먹는것, 의료진들 상의함, 보행기 사용
- 사회적 일들- 외로움 이기기, 함께하기. 간단한 것으로 가능하면 빈 카드에 지원한다는 말을 써서 보내는 것
- 심리적 일들- 자존감, 자신의 느낌을 말함
- 영적 일들- 믿음, 소망, 삶의 의미, 하나님과 연결.

“왜 하나님이 이 일(비극)을 했는지를 아는것” 같은 척을 피함.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 혹은 뜻과 비극적 일들에 다른
해석들을 참고함은 힘든일임.

더 자세한 정보는:

- *케이스 역할을 넘어서: 만성 질환자 친구를 도와주는 505 가지*, by 리사 J. 코펜
- *자비로운 여행: 장애를 가진 자들과 혹은 만성 질환자들과 함께하기*, by 존 G. 쿡
- 렵 어라운드 정보: www.nwi.pdx.edu
- 식사나 가족들을 돕는 위한 웹 시스템근거의 만들기-
www.carecalendar.org

장애 가진 자들과 그 간병인들을 돕기

아래 질문들은 교회 공동체가 장애를 가진 자들과
혹 그 부모나 간병인들을 돕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사용한다. 자세한 질문들은 (“돌봄을 위한 자료들”등과
같이) www.crcna.org/disability 이나
www.rca.org/disability 에서 볼 수 있다.

1. 우리 임시 간호를 도울 수 있나요?
2. 우리 가사 일들을 도울 수 있나요?
3. 우리 운송을 도울 수 있나요?
4. 우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나요?
5. 우리 교회 참여 혹은 관계를 도울 수 있나요?
6. 우리 다른 방법들로 도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의료
정보에 대한 문의, 보험 일의 도움, 정부 도움 구하는
편지 작성, 영적 제공 마련함, 변호일의 안전함,
방문하기, 등

깊이 살펴보기

예배 "방해들"

거절의 말들을 피하는 반응들

*By 빌 가벤타, 신학과 장애위한 여름 연구소의 통합 사역
상의사와 코디네이터*

내 어린 두 딸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한 여자 노인이 내 파괴 유아를 치워하고 말했다. 그녀는 비난 조로 말했다. 난 아이들을 유아실로 데려갔지만 울어버렸다. 몇주 지나, 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갔는데, 그런데 내 아들은 파괴적 이었다. 난 일어나 나갈려고 할 때, 목사님은 나를 멈추게했다. 말씀 중간에, 그녀는 나를 앉으라고 했다. 그녀는 모든 회중들에게 내 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모두가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자라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 글을 쓰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은, 7년전에 유아실에 흘리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무명, 자폐증과 믿음: 공동체로의 여행)

아이들이 울음. 장애를 가진 자들은 계속 앓을 수가 없음. 어떤 사람들은 상황관계없이 큰소리로 말함. 그럴때 우린 모든사람의 믿음을 세우면서 거절의 말들을 피하는 방법들은 어떤것들인가?

-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할 때 우린 어떻게 하나? 물어보기.

- 만약 가족이나 간병인이 그런 행동들을 걱정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하며, 교회 다른사람들에게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고 말하기.
- 예배시 묵시의 규칙과 행동 규범을 생각하기. "우린 어떻게 사람들이 배울수 있는지나, 어떻게 더 유연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 교인들을 그룹 홈 사람들이나 직원과 친근하거나 예배시 어려운 부분에 함께 앉게하기. 직원이 질문하며 인도하게 하기.
- 모든 행동들이 다 대화임을 기억하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원하는지를? 이런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를 모를 때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게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참 기쁨과 통찰력의 깜짝스런 일들을 준비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 "자폐증과믿음"을 rwjms.umdj.edu/boggscenter 에서검색함.
- worship.calvin.edu 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사들이 있음"을 검색함.

장애 인식 주일을 축하하는 방법들

장애 인식 주일은 장애를 가진 자들에 관해 인식을
돋우는 기회로 교회 생활에 그들의 완전한 함께함을
탐험하는 것이다. 온라인서 더 찾아볼 수 있지만

(www.rca.org/disability and www.crcna.org/disability),
그러나 여러가지로 장애 인식 주일을 축하할 수 있다:

- 장애우와 함께 사는것에 대해 어른의 포럼을 계획(혹
비슷한 주제). 어린이는 장애를 갖은 사람들을 만나고,
휠체어나 목발도 사용해보고, 수화도 배우는 장을
마련함.
- 예배의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이나 모든 사람을
환대함을 계획함. 예배 인도자에게 교회 공동체안에
장애우나 장애 아이를 갖은 부모든지 그들이
경험이나, 성경의 도움과 힘든일, 삶의 이야기등을
나눠는 모임을 격려해봄.
- 예배 계획 모임에, 장애를 가진 자들의 은사 나눔을
초대하기 (순서자들, 안내위원, 성찬봉사자, 음악인,
설교자, 등),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시
용"으로 함을 피함.
-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하지, 장애 상태를 중요시하는
언어 조심 (60 페이지를 보기).
- 장애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기에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부분임으로 모두 가치,
품위와 영적 은사들을 가진 주요한 의미를 강조함.

- 교회 접근성 심사를 지도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과 함께 만듦. 교회를 할 수 있는대로 잘 접근성이 있게 함.
- 계획 위원회를 만들어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를 목표함.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예배나 교육 제공에 참여함으로 지역에 전도함.

당신의 교회 사용이 무엇이든 할때, 장애 고정관념 영속함을 피해 돌봄을 훈련함.

장애를 위한 교회 정책 주형

이 정책 본본기는 장애를 위한 정식 정책을 바라보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다.

약 북미주의 5 명의 하나 꼴로 장애를 갖고있으며, 장애는 삶의 한 자연스럼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취득될 수 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지적, 혹 감각적인 것으로 질환을 가진 자들은 태도나 환경들로 힘든 장애들을 있거나 작용적인 한계 자체가 아닌 우리들이 만들고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나 환경들이 그들을 교회서 멀어지게 한다.

우린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린 장애를 가진 자들은 긍정적으로 인간 다양성과 공동체 삶에 영광을 강화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학적 믿음에 따라, 교단의 결정들에 따라서, 우린, [교회 이름] 치리회는 다음의 정책들을 채택한다.

1.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언약의 파트너로,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함께 일하는자로 가치를 같는다.
2. 우린 모든 사람은-장애가 있든 없던 간에-성령의 은사들을 갖었고, 그리고 우린 모두가 그들의 믿음과 은사들을 훈련, 지도자와 선교이 사역들에 참여함으로 풍부하길 장려한다.

- 3.우린 장애를 가진 자들과 모든 교회의 사역과 활동들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예배, 교육, 소그룹들, 전도, 활동들, 등을 포함한다.
4. 우린 장애들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간병인들을 포함해서, 특별 영적, 육체적, 심리적 필요들을 말하고, 이해하고 유의를 추구할 것이며, 또 장애 문제들에 적당히 반응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교회안에 인식을 올릴것이다.
5. 우린 어떤 정책, 실행, 순서, 혹은 건물로 장애를 가진 자들이 교회 생활의 어느 부분에서도 제외되면 바꿀것이며, 그리고 우린 이런 일을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충분한 토의로 성취할 것이다.

[언제] [교회이름]의 [치리회]에서 채택함

장애 신학의 터치 포인트들

일상 생활에서 장애의 넓은 스펙트럼처럼, 예수님이 장애를 갖은 사람들을 향한 반응은 아주 다양하며, 그것은 혼돈을 주거나 확신을 가져온다. 여기 장애 주제 문제들을 다룰 몇개의 신학적인 관점이 있다:

• **죄와 장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오래거나 상상처럼 죄와 연결시켜 버리지만, 원인과 결과의 의미는 교회 예배안에 미묘한 방법으로 깊숙히 남아있다. 특히 소경은 죄의 상태에 표시하는 은유적으로 사용하며, 혹은 특히 찬송속에선 기독교인 이전의 상태를 나타낸다. “놀라운 은혜”의 찬송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전에 잃었던 것을 지금 찾았고, 내 소경의 광명을 얻었네.”

비난의 신학과 반대하여,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대했을 때, 이런 상태는 그 누군가의 죄의 원인이라 가정했었다(요한복음 9:2); 예수님은 그 전제를 거부했다. 우리 죄의 결과들이 상당히 큼을 부인할 수 없지만-일상생활과 인간 사회속에 분명히 나타남-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역을 함께 유지하면서, 교회는 장애가 결코 신의 징벌이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 **고침, 나눔과 환영함:** 예수님의 사역속에선, 어떤자들은 기적인 고침들인 “소경이 눈을 뜨고, 절음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귀머거리가 들었고...”함을 경험하였다 (마태복음 11:5).

그러나, 치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았고, 또 한 편만 강조하는 치유는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소외함과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환영함은-종종 우리안에 "낮선 사람들"을 생각해함- 교회의 동기는 "고치거나," 치유하거나에 두면 안되고, 혹 그들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여야 한다. 실제로, 낮선 사람들을 환영함은 어떤이들에겐 싶지않은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필요들을 공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존중 협상으로 배려함을 요구한다.

"고치거나" 혹 회복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사랑의 공동체는 다른 종류의 치유를 장려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장애는 삶에 용기를 가져오고, 장애속에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과 서로에게 연결됨을 도와주는 것이다.

교회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소중함을 감사하는 것이다. 기독교인 정체성은-장애가 있든 없는 사람들이건 간에-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연합으로 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섭리, 주권과 구속적인 목적:**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것으로 복수를 무서워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향한 마지막 말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 50:20).

성도들이 경험하는 장애는 강요든 그들 정체성의 부분이든, 그들은 종종 사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궁극적이고 힘든 질문에 부딪치곤 한다. 전통적인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선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강조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함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왜”란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혹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임을 우리가 아는데 부족할 때도, 우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에도 혹 상상치 못할 일들에서도 좋은 것을 주심을 아는것이다. 이런 확신은 앞으로의 시간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함을 설명하든지 혹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지 않았는데 일들을 허락하실까하는 것을 멈추게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함께 여기는 구속적 목적의 짧음과 혹 하나님의 뜻이 기계적이고 결정 방식을 잠재운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 함은 우리의 “왜”라는 질문들의 답을 주장하긴 보단 더 만족하게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무엇이 가장 필요함을 예비하시고 함께하십니다.

● **장애와 부활:**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미래 삶의 전통적 견해는 —우리 몸이 부활 할 때- 한 장애의 가능성을 무시함이다. 우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가진 온전한 몸인 것처럼 기대하며, 그들 이생의 삶의 한계인 장애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요한계시록 21 장).

그러나, 아모스 용은 성경구절을 인용해 부활 때 우리 구현 존재는 장애의 흔적들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옆구리와 손의 자국들 (누가복음 24:37-39, 여한복음 20:19-28),
- 큰 잔치의 비유속의 장애 가진 사람들의 존재 (누가복음 14)과 야러 예언적인 본문등 (예레미야 31:8-9, 미가 4:6-7, 스가랴 3:19-20),
- 사도 바울의 부활 묘사 (고린도전서 15:42-44)과 그의 "약함의 신학" (고린도후서 4:7-12, 12:7-10).

낸시 에이스랜드는 그의 부활한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장애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계시됨으로... 온전한 인격의 존재인 장애의 경험과 완벽하게 호환됨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몸처럼 또 그의 상처들을 보여주셨고, 그는 우리 부활의 몸들이 마찬가지로 장애의 흔적들을 여전히 보여줌을-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의 한계성이 아닌, 신적 은혜의 흔적들 처럼, 우리 고통을 담당하신 우리의 가장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적들?을 아는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 "모두와 모두를 위한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의 세계적 장애 옹호 네트워크의 중간 성명서-[www. Oikoumene.org](http://www.Oikoumene.org)
- *고통을 넘어서: 장애 사역의 기독교인 견해*, by 죠니 에릭슨 타다와 스티브 번드 -www.joniandfriends.org/BYS

교회 장애 옹호자들 역할들

교회 장애 옹호인은 개 교회서 장애를 가진 자들의 온전한 통합을 도모함을 찾는 자원봉사자이다. 지역 장애 옹호인은 한 특별한 지역 여러 교회들안에서 장애를 가진 자들의 완전한 통합을 도모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시간, 재능들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교회 옹호자의 책임은:

- 장애들의 영향으로 교회 성도들의 필요을 확인하고 그 필요들을 교회 지도자에게 알게함.
- 교회 지도자가 장애 정책을 받아들이게 옹호함과 그것의 활용을 도움.
- 교회생활에 장애를 가진 자들이 통합하도록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최대한 사용케함.
- 일년에 적어도 두번씩 정해진 지역 옹호인과 교제함.
- 장애를 가진 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상담 자료들, 변호와 다른 기관들이 정보와 법적과 재정적인 도움, 모든수준의 정부적 출처을 도움을 준비함.
- 장애 자료들, 필요한 뉴스레터나 다른 인쇄물들 배급함.
- 장애 네트워크에, 특히 훈련 기회들을 참여함.

많은 지역 장애 옹호인의 책임들은 교회 장애 옹호인과 비슷함; 그러나, 지역 옹호인은 시도하는데:

- 지역의 각 교회들 마다 한교회 옹호인을 작성해 적합한 장애 네트워크와 필수 연결할 수 있게함.
- 지역안에 교회 옹호인들 위한 훈련, 자료들, 정기적 격려를 마련함.
- 이 사역을 말과 인쇄물과 개인 접촉으로 도모함.

장애 옹호자를 파송하기

이 발췌록들은 장애 옹호자를 파송하기 위한 장황한 설명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는데 (www.rca.org/disability) 각 교회나 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정식 파송함은 교회의 리더쉽을 돕는 것 제공한 개인의 배치는 긍정적으로 환영, 공동체에 참여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곳은 모든사람은 속해있고 모든사람은 봉사함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이름을 집어놓음, 즉 "장애 옹호자") 파송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만이 모든 기독교 사역의 원천이며, 모든 세대의 남자와 여성을 봉사하게 합니다.

성령의 의해서, 모든 믿는자와 세례자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전도하는 사역에 함께하고, 그들이 살며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봉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은 모두를 온전히 포용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소금이며;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따름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 선지자들과 교사들, 능력행하는자, 병고치는자, 도움과 지도자의 모습을...주었습니다.

(개인에게) 우리의 주님, 우리 안에 섬기로 오신분, 우리를 믿음과 감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안에 특별한 봉사를 세웠고, 장애 사역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를 세우시고 한 몸안에 우리가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많은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린 각기
서로에게 속했습니다.

우린 은혜에 따라 주신 여러 은사들을 갖고 있으며: 예언,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역; 가르치는 교사; 권면하는 위로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합니다.

당신은 이 사역 (본분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이 일을 (당신의 교단)의 가르침과 생활에 따라서 이행할 것인가요? 당신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은혜의 사용함을 신실하게, 지속적인 기도할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돌봄, 당신이 봉사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자라갈 것, 일을 열심히 하며, 연합하며, 깨끗함과 교회의 평화와 거룩한 삶과 복음을 가꾸고 지지하십니까?

(회중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분을 주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분이 우리 공동 생활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할 것입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세상과 교회에 여러 가지의 일을 위해 일군들을 부르시며,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군을 부르셨습니다. 이 분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분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만드는데 신실한 사역의 삶을 우리에게 선동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당신은 각 개인에게 은사와 열정을 주셔서 배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돌봐주시기를 이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분에게 지혜와 인내와 사랑으로 충만해 주소서;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해주시고, 이 분이 교회가 환영하는 기쁨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인도하게, 공동체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속하고 봉사하는 곳인,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 성령으로 봉사하고 힘을 주시는 성숙한 제자도가 되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이 살펴보기

장애 태도들

인식과 참여속에서 성장하기

By 댄 벤덜 플라츠, 엘림 기독교 봉사회, 발전 디렉터

교회들이 건축과 대화 장애들을 없앨 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생활에 참여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장애에 관한 그들의 태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의 교회생활에 연대성은 항상 부수적 일 것이다.

다음의 연속체는 장애 태도의 여정과 함께할 다섯 단계들을 묘사하며, 개인들과 교회들에게 태도들을 검토함을 돕게함으로 모든 교회 생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

• **무지**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잘 모른다면, 그들에 대해 모른다면, 자주 염려와 판단을 가져온다. 한 일반적인 태도는: "장애를 가진 자들은 아마 죄나 혹 믿음의 부족의 결과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인식이 증가하면서 무지로부터 운동이 시작되는데...

• **동정**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연민함. "난 소경인 그 남자를 연민을 느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함께 한다." 교회들이 건물들과, 대화와 접근 프로그램, 성도들이 연민을 위해 주고 받기를 시작할 것...

• **돌봄** —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봐줄려고 노력함. 왜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도울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린 특별 교회 교육 반이나, 혹은 부모들을 위한 임시 돌봄을 시작할 수 있다.” 장애를 갖은 성도들은 교회의 생활에 통합함으로, 교회가 ...을 향한 이동을 시작한다.

• **우정**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함.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그의 몸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가져오고, 우린 서로 우정 안에서 자라는 유익들을 갖는다.”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모든 교회의 생활에 참여함으로, 친구들은 되어가는데...

• **동역자들** — 장애를 가졌든 안가졌든지 사람들과 사역을 참여함. “함께, 우린 장애가 있든 없든지 함께 모든 좋은 일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 “장애 태도들의 단계들” 비디오와 도표
— www.elimcs.org/5stages
- *상처입기 쉬운 교제*, by 토마스 레이놀드
-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는자*, by 헨리 뉴우먼

첫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

“처음 쓰는 언어자”를 선호 사용함은 누구든 처음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그리고 장애는 어떤사람의 부분이지 전체 사람은 아니다.

피해할 단어들/구들	바람직한 대안들
한 장애 있는 사람	한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인 또는 불구	장애를 가진 사람
정상, 건강한, 혹은 할 수 있는 사람/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 혹은 일반적인 사람
휠체어-제한 혹은 휠체어에 국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휠체어를 사용함
출생 결함	선천성 장애
뇌성 마비의 피해자 (혹 다른 상태)	뇌성 마비를 가진 자 혹은 (상태 삽입) 가진 자
소아마비로 고통	소아마비를 가진 사람

정신 지체, 지체, 느린, 혹은 특별한	지적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
다운 사람 혹은 몽골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
간질이나 혹은 간질, 적합 혹은 간질 적합	간질을 가진 사람, 간질 장애를 가진 사람, 간질자, 혹은 간질 삽화
정신 질환자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
소경 혹은 장님같은 맹인	소경을 가진 자 혹은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 농아와 농아자	듣기 어려워 하는 사람, 청각, 청각을 가진 사람

더 다른 자료들*

옹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미국 협회 – www.aapd.com
장애와 함께하는 캐나다 카운실 – www.ccdonline.ca
장애는 자연스럽다 – www.disabilityisnatural.com
장애 국자 – www.disabilityscoop.com
장애를 위한 국립 기구 - www.nod.org

알츠마이어/치매

알츠마이어 협회 – www.alz.org
캐나다 알츠마이어 학회 – www.alzheimer.ca

돌봄

캐나다 간병인 연합 – www.ccc-ccan.ca
돌봄 달력 – www.carecalendar.org
돌봄을 위한 국립 연합 – www.caregiving.org
평생 옹호 네트워크 계획 – plan.ca
재활 봉사들 –
www2.ed.gov/about/offices/list/osers/index.html
형제 지원 사업 – www.siblingsupport.org
“유타”를 대한 검색 – www.crcna.org
랩 어라운드 정보 – www.nwi.pdx.edu

*정기적으로 자료의 업데이트 목록들은 볼수 있음.
www.crcna.org/disability and www.rca.org/disability.

교회 접근성

장애인 법 자료와 온타리오 주에 대한 접근성 —

www.christian-horizons.org/services/accessibility

장애인 법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미국인들—

www.adata.org

기독교 학습 센터(CLC) 교회 봉사회 —

www.clcnetwork.org/church_services

쥘리와 친구들 — www.joniandfriends.org

미국 교통 이사회 — www.access-board.gov

교회 관련 자료들

미국 침례 국내 선교부 장애 사역 학회—

www.nationalministries.org/disability_ministries

재 세레파 장애 네트워크 (ADNet) — www.adnetonline.org

하나님의 성회 — ag.org, search for “disabilities”

베데스다 연구소 — bethesdalutherancommunities.org

기독교 개혁 교회 장애 관심처 — www.crcna.org/disability

교회 접근성 네트워크 — www.accessibilitynetwork.net

장애 관심처 네트워크 — network.crcna.org/disability

세계적인 장애 옹호 네트워크 (EDAN), 세계 교회 협의회 —

www.edan-wcc.org

성공회 — www.disability99.org

복음 언약 교회 — www.covchurch.org/justice/disability

미국 복음 루터 교회 — www.elca.org/disability

루터 교회 미조리 회의 - www.lcms.org/page.aspx?pid=913

장애위한 카톨릭 국립 조합 — www.ncpd.org

미국 개혁 교회 장애 사무처 — www.rca.org/disability

미국 장로 교회 — pcamna.org/special-needs

미 장로교단 (USA) — [www.presbyterianmission.org/
ministries/phewa/presbyterians-disability-concerns](http://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phewa/presbyterians-disability-concerns)
제 칠일 안식교- www.nadventist.org/disability
캐나다 연합 교회 -
www.united-church.ca/intercultural/disability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 — www.uccdm.org
연합 감리 교회 — www.umdisministries.org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적 장애 옹호 네트워크
— www.edan-wcc.org

듣기 힘들고 청각 장애인

늦은 귀머거리 성인들 협회 — www.alda.org
캐나다 청각 협회 — www.cad.ca
청각 기회 전도 — www.doorinternational.com
청각 루프 — www.hearingloop.org
청각장애인의 국립 협회 — www.nad.org

지적과 발달 장애들

지적과 발달 장애위한 미국 협회 종교와 영성 분할 —
www.aiddreligion.org
닻 협회 — www.anchor-association.com
(온타리오주서 봉사)
캐나다 자폐증 — www.autismcanada.org
베데스다 기독교 협회 — www.bethesdabc.com
(남 브리티시 콜럼비아서 봉사)
베데스다루터공동체 -
bethesdalutherancommunities.org
케스게드 기독교 봉사 — www.cascadechristianservices.org
(서부 워싱턴서 봉사)

기독교 지평선 Christian Horizons — www.christian-horizons.org
(온타리오와 세계속 봉사)

기독교 기회 센터 — www.christianopportunity.org
(남 중부 아이오아서 봉사)

부활절 실 Easter Seals — www.easterseals.com
 동부 기독 어린이 수양관 — www.eccretreat.org
 (뉴 저지서 봉사)
 엘림 기독 봉사- www.elimcs.org (대 시카고서 봉사)
 우정 사역부 — www.friendship.org
 회색 센터- www.thegraycenter.org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위한 자원)
 유산 기독 봉사 — www.heritagechristianservices.org (서부
 뉴욕서 봉사)
 소망 센터 사역 — www.hopcentreministries.org
 (매니토바, 위니펙서 봉사)
 소망 네트워크 Hope Network — www.hopenetwork.org
 (미시간서 봉사)
 소망 헤븐 — www.hoprhaven.org (북서부 아이오아서 봉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국립 보급 센터 —
www.nichcy.org
 르호보 기독 사역- www.rehoboth.ab.ca (알버타에서 봉사)
 라운드 업 교제- www.rup.org (콜로라도서 봉사)
 살렘 기독 홈들 — www.salenchristianhomes.org
 (남가주에서 봉사)

미국 자폐증과 아스퍼거 협회 – www.usautism.org
북서부 끝없는 마을 – www.villagenorthwest.org
(북서부 아이오아서 봉사)

정신 질환들

캐나다 정신 건강 협회 – www.cmha.ca
시카고 기독교 상담 센터 - www.chicagochristiancounseling.org
(대 시카고서 기독교 상담 봉사)
기독교 상담 – www.shalemnetwork.net
기독교 돌봄 주택 – www.homesteadchristiancare.ca
(온타리오서 봉사)
정신 건강 사역 – www.mentalhealthministries.net
정신 질환위한 국립 동맹 – www.nami.org
덴버 위한 목회 상담 – www.ppcdcounseling.com
(대 덴버에서 기독교 상담 봉사)
약속의 좁은 길 – www.pathways2promise.org
소나무 휴양소 – www.pinerest.org (미시간서 기독교
정신의학의 병원과 봉사)
조용한 바다 사역 – www.qwaters.org (기독교 지도자들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라마포 리즈 정신의학 병원 – www.christianhealth-care.org (뉴 저즈에 기독교 정신의학 병원)
샬롬 정신 건강 네트워크 – www.shalemnetwork.org
웨즈우드 기독교 봉사 – www.wedgwood.org
(청소년을 위한 서부 미시간 상담 서비스)

파킨슨 병

파킨슨 연구의 마이클 J. 폭스 재단 – www.michaeljfox.org

국립 파킨슨 재단 – www.parkinson.org
캐나다 파킨슨 사회 – www.parkinson.ca

육체 장애들

캐나다 뇌성 마비 – www.cerebralpalsycanada.com
부활절 씬 – www.easterseals.com
캐나다 근육 영양 장애 – www.muscle.ca
근육 영양 장애 협회 – www.mdausa.org
부모 홍보 근육 영양 장애 – www.parentprojectmd.org
연합 뇌성 마비 – www.ucp.org

시각 장애들

시각장애위한 미국 카운실 – www.acb.org
시각 장애위한 미국 재단 – www.afb.org
시각 장애위한 캐나다 카운실 – www.ccbnational.org
시각 장애위한 캐나다 국립 연구소 – www.cnib.ca
시각 장애위한 국립 연합 – www.nfb.org